

설비관련 삽 제작 완전 정착

## 제2 도약 향해 날개 펴다



준제E&C는 경기도 이천에 2천여평의 공장을 마련하고 설비관련 토탈 삽 제작에 들어갔다.

### 경기도 이천에 국내 유일의 설비관련 일괄 공장제작 가능

준제E&C(주)(대표이사 고태식)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09번지에 대지 2천여평의 공장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중순부터 설비관련 여러 부품의 삽 제작에 들어갔다. 이천 공장은 덕트(1층)·배관(2층)공장 1개동, 자재창고 1개동, 기숙사 1개동, 취사장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평 950여평 규모이다. 대지가 경사지인 점을 이용해 배관공장인 2층에도 차를 대고 물건의 반출입을 원활하게 했다.

열은 분홍빛 파스텔톤으로 세련되고 심플한 외관이 돋보이는 공장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신규자재와 재활용한 자재가 한데 어우러져 있

다. 원래는 이포공장에서 10년 정도 삽 제작을 했었으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천에 공장을 새로 마련한 것이기에 이포공장을 허물면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전부 다시 사용했다. 공장을 둘러보면 곳곳에 새것과 헌것의 조화가 눈에 띈다. 철기둥도 조각조각을 용접으로 이어서 붙였다. 새것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지붕은 사선으로 하여 경사면을 따라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100% 한국전력에 팔아 한달에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에 비해 3배의 수익을 남긴다. 태양광 시스템에 3억원

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6년이면 투자비용이 회수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단품 위주의 샵 제작을 운영하는 반면 준제E&C는 백화점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배관, 이중관, 덕트, 소화설비, 철물가대 등 설비와 관련된 것을 총 망라



고태식 대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긴 지금이야 말로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 이천에 70억원을 들여 재투자를 감행했다.

하여 가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백화점식 공장 생산인 것이다. 2층 배관공장은 10mm부터 대구경인 1000mm까지 제작·조립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통 샵제작 공장에서는 소구경 파이프만 가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스프링클러 배관도 제작하는데 소방안전 테스트 기계를 갖춰 놓고 기밀시험까지 완벽하게 테스트 한 후 소방안전협회의 검정을 거쳐 현장으로 공급한다.

이천공장은 가동하자마자 매일 오후 10시까지 작업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5시까지 작업하고 있다. 준제E&C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일 잔업해야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준제E&C의 현장 규모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준제E&C는 현재 60% 정도의 공장작업 비율을 앞으로는 70~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장의 샵 제작은 규격화, 균일화되어 동일 시스템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자재의 로스를 많이 줄이는 것은 커다란 강점이다.



이천공장은 신규자재와 재활용 자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포공장에서 쓰던 창문과 판넬, 철기둥을 조각조각 이어 붙였다.



1층 공장에서는 사각 · 스파이럴 덕트를 모두 생산해 낸다. 사진은 덕트 제작과정과 완성품



2층 공장에서는 배관의 샵 제작을 한다. 사진은 소구경 · 대구경 배관의 가공작업과 스프링클러 테스트기

공장의 샵 제작은 현장에서의 작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재 손실 및 인건비가 적게 든다. 보통 현장에서 남는 자재들은 현장 관리자들이 헐값에 고철로 매각해 버린다. 그러나 준제E&C는 현장에서 남는 5cm 이상의 자재는 모두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이 자재들을 공장의 재활용 창고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놓았다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그 자재가 필요할 경우 갖다 쓰는 것이다. 현장의 자투리 자재를 공장으로 반입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현장소장들의 반발이 컸

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의 이익을 알기에 현장에서 솥선수법하여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각 현장에서 반입되는 자재를 품목별, 치수별로 구분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재활용은 물류비용, 인건비 면에서 다소 부담될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오히려 이득”이라고 고태식 대표는 말한다. 공장에서 작업하고 남은 자투리 고철들도 따로 모아 놓고 1년에 2번 정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현장에서 남는 자재를 모아놓은 자재창고. 전담직원이 품목별, 치수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놓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쓴다.

이천 공장에는 3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4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관리를 맡고,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생산성은 떨어져도 단순 반복작업이기 때문에 1년 후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베트남, 방글라데시인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조리대와 식탁을 따로 구분하여 배치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문화로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 반면 베트남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 많아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태식 대표는 “그간의 경험에 의한 구분”이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였다. 기숙사는 8개의 방에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이 있다. 전기 타이머를 달아놓아서 불을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보니 통제에 어려움을 느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한 것이다. 깨끗한 기숙사를 돌



공장에서 작업하고 남은 자투리 고철들도 따로 모아서 1년에 2번 매각한다.



기숙사에 설치된 전기 타이머.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했다.

러보며 청결 유지의 비결을 물어보니 매일 청결, 정리정돈을 교육시켰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 외부차입 거부 철칙경영,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 극복의 원동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준제E&C에도 위기가 왔었다. 협력업체였던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6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 때 물린 공사금액은 웬만한 업체는 도산할 만큼 큰 액수였다. 그러나 외부차입이 10% 이상은 절대 안된다는 철칙 하에 경영했기 때문에 위기를 잘 극복했다. 현금으로 못받은 경우에는 대물로 받았다. 대물로 받을 때는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골랐다.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고른 덕분에 처분도 쉬웠다고 한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도 더 많이 먹는다는 교훈을 실감케 했다. 그 영향으로 지난 몇 년간 매출이 줄었지만 지출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버틴 결과 작년부터는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

준제E&C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긴 또하나의 비결이 있다. 대량구매, 잉여자재의 재활용이 그 비결이다. 자재를 구매할 때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에서 대량으로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많다. 중간운반비를 줄이고 싸게 구매하는 것이다. 또 값이 올라갈 조짐이 보일 경우 미리 대량구매 해서 공장 창고에 쌓아 놓는 것도 비법이라고 한다. 이밖에 주문제작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이익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이다. PB파이프의 경우 보통 100mm 제품이 나오는데 준제E&C는 제조업체에 300mm로 주문제작을 의뢰한다. 100mm보다 300mm가 손실이 적게 나는 것은 다이는 이치이다. 역시 티끌모아 태산인 것이다.

### 침체기인 지금이야말로 투자 시기, 과감한 재투자로 경쟁력 강화

IMF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고태식 대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긴 지금이야말로 준제E&C가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축설비의 샵 제작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이천공장에 재투자를 결정했고 지난해부터 작업에 들어가 지난 9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천공장에는 수십억원의 투자비가 들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고태식 대표는 “어려울 때 투자해야 인건비, 자재값 등에서 오히려 절감될 뿐만 아니라 호경기로 돌아설 때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준제E&C는 1차 IMF 이후 부동산 값이 추락할 때 서울 논현동에 있는 사옥을 준비했다. 저렴한 가격에 사옥을 지음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서울 사옥은 고태식 대표의 용모에서처럼 깔끔함과 세련됨이 묻어난다. 건축사무소 분위기를 방불케 할만큼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장기근속자 다수, 낮은 이직률로 경쟁력 강화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준제E&C는 반도체, 전산실 등 클린룸 분야의 전문 시공업체이다. 500억원 대의 국내공사를, 200억원 대의 해외공사를 하고 있다. 해외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 스리랑카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준제E&C는 전 직원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며 이직률이 아주 낮다.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다. 현대건설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중역들은 고태식 대표와 20년 이상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현대건설 출신인 고태식 대표는 대기업 마인드로 경영하고 있다. ‘한가지만 똑바로 하자’를 모



근검절약정신이 몸에 밴 고태식 대표의 현장 작업화. 장갑도 여러번 세탁해서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경영방침에 의해 준제E&C의 직원들은 아껴쓰고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토로 직원들에게 “철저한 확인, 책임감, 앞서가는 마인드”를 요구한다. 그래서 낡은 사고방식으로 근무하면 버티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며 작업할 것을 강조한다.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오래 근무하게 하는 요인이다.

준제E&C는 5년 이상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와 국내를 번갈아가며 매년 부부동반 포상 휴가를 보낸다. 올해는 동남아로 갈 계획인데, 여행 겸 해외 현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고태식 대표는 요즘 또하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변신을 시도 중이다. 1만6천여평의 기존 이포공장에 고품격의 토탈 농원을 지을 계획이다. 올해 연말쯤 허가가 나면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그간 설비분야 외길을 걸어온 고태식 대표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된다. 🌀